

문학과 사건

- 『82년생 김지영』으로 바라본 정동 장치로서의 소설과
문학주체 되기

권 영 빈*

차 례

1. ‘김지영’이라는 미결정의 서사
2. 정동 장치로서의 소설과 ‘저자-되기’
3. 문학과 사건: 소설-독자의 상호 참조와 정동됨의 구조
4. 사건화하는 사건: 오토포이에시스로서의 ‘빙의’
5. ‘되기’를 향한 욕망으로서의 문학

국문초록

이 글은 『82년생 김지영』을 정동적 ‘되기’의 관점에서 주목해 소설이 지닌 서사 구성의 원리를 문학주체를 주조하는 기술적 요인으로 분석한다. 정동(affect)은 힘을 주고받는 존재들 사이에 형성되는 초개체적 관계성과 그 힘의 증감, 주체의 ‘되기’라는 형성적·과정적 양태를 강조하고 의미화하는 개념이다. 소위 ‘정동하고 정동되는 몸의 능력’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정동됨(연결)’을 ‘정동하는 능력(행위)’으로 변용하는 정치적·윤리적 주체화의 형식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정동의 대표적 쓰임

* 동아대학교 강사

이라 할 수 있다. 정동은 예측불가능성과 비인칭적·비본질적 특징을 필수적으로 갖지만 마주침(encounter)의 흔적과 그 축적이 세계를 재고하는 교육-미학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동시대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들이 되며, 『82년생 김지영』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동 장치로서의 내밀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은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스트 주체의 생산과 운동 흐름의 분화를 포함해 다양한 문학·문화사적 계기와 담론들을 형성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서의 『82년생 김지영』은 ‘공감’이라는 포획된 정서에 기반한 여성 주체의 각성과 연대를 설명하는 것이 되기에 앞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텍스트 내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정동적 ‘되기’는 소설-독자의 상호 참조와 상호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실천으로서의 자기 재정보화로, 소설의 특징인 통계수치 인용과 같은 독자 동반출현 기술과 젠더화된 공간의 학제화·생애주기화는 이러한 ‘되기’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다. 한편 『82년생 김지영』에 등장하는 ‘빙의’는 김지영의 몸이 자신의 주체성을 매끈하게 비워낸 공간이 아닌, 단독자이면서도 타자와 항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치이다. 이는 소설이 김지영의 삶을 대신 이야기하는 의사와, 자신의 주변을 살았던 여성을 대신 이야기하는 김지영과, 현실의 여성을 대신 이야기하는 텍스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복합 구조를 체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사 구성의 원리가 소설 안팎으로 새로운 문학주체를 구성하는 자기조직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82년생 김지영』은 우리 사회에서 정동적 주체(들)의 발작적 출현의 징후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이 글은 소설이 지닌 운동성을 현상이나 담론의 맥락이 아닌 서사 내적 원리로 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주제어: 『82년생 김지영』, 정동, 페미니즘, 몸, 되기, 여성서사

1. ‘김지영’이라는 미결정의 서사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하 『김지영』)은 2016년 10월 발표 직후 화제작이자 문제작이 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학·문화사적 계기와 담론들을 형성해냈다. 출간 후 약 2년여 만에 밀리언셀러 반열에 오른 『김지영』은 2020년에는 당해 소설 분야의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수년간 출판문학시장에서 인상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비슷한 시기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세계적 관심을 받으며 한국문학의 위상을 제고하려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김지영』의 출현은 한국문학장 안팎에서 발생한 일종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를 기점으로 한 여성서사 또는 페미니즘 문학의 약진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친숙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 글은 『김지영』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과의 점점 속에서 정동 장치로서의 소설과 문학주체 ‘되기’의 문제를 텍스트 내적 논리로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지영’이라는 가상 인물의 일대기는 평범하다 여겨졌던 동시대 여성의 삶을 사건화하는 동력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2010년대 중반의 새로운 독자층과 접속했을 때 『김지영』은 종래의 문학의 범주를 넘는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직접적으로 추동한 것은 1980년대 태생을 둘러싼 특정 세대이자 젠더가 경험한 공통감각이었다. 이들은 소비대중문화의 폭발 속에서 성장했고 문화주체로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구매력 자체보다는 콘텐츠를 비평하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형성하는 운동성의 차원에서 확인된다. 현재 청년세대 혹은 1980년대 전후에 태어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이 기회의 평등과 그 평등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대중문화에 대한 향유 욕망과 결합되어 있고, 특히 이러한 욕망을 발신하는 수단으로서의 SNS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간은 한국사회의 기술적·정치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세대론이 결부된 다양한 방식의 발

화,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의 지평이 형성되고 각축하는 곳이다.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를 맞을 수 있었던 데에 이러한 비물질적 공간을 토대로 한 정동적 연결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김지영』으로부터 촉발된 사회·문화적 담론의 소요 역시도 대변한다.¹⁾

- 1) 『김지영』은 출판사 청탁이 아닌 작가 투고에 의해 출간된 책이다. 2017년 고(故) 노회찬 의원의 트위터 추천글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유명세를 탔고 같은 해 <남녀임금차별방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 안인 일명 ‘김지영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과정에 언급되기도 했고 여성 아이돌과 스타들의 ‘인증샷’을 향한 사이버공격이 이루어지면서 『김지영』은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사회적 의제의 아이콘이 되었다. ‘79년생 정대현’, ‘92년생 김지영’과 같은 패러디물과 『김지영』 영화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 ‘김지영’ 역을 맡은 배우 및 영화를 지지하는 여성 배우에 대한 악플 공격, 영화가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되는 평점 테러는 『김지영』이 당시 한국사회의 젠더 정치를 담당했다는 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김지영』을 단순한 ‘문학’ 텍스트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드러낸다(이상 『김지영』 관련 이슈는 임수연, 김소미, 『사회가 낳은 소설, 소설이 키운 이슈, 이슈가 띄운 영화: 『82년생 김지영』 관련 논란 타임라인』, 『씨네21』, 2019.10.30. 참조.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4131). 한편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김지영』 열풍은 오히려 거세졌는데, 2020년 기준 『김지영』은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했고 일본 21만부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장은수, 『해외서 위상 높아진 한국 문학, 그 이면엔』, 『서울신문』, 2020.10.29.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35131>).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김지영』 열풍에 대한 평가이다. 일본에서 『김지영』은 ‘K-문학’이라는 브랜드를 낳은 것 외에 일본 내 여성 담론이나 페미니즘 운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인 독자들은 『김지영』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크게 공감했으나 베스트셀러가 된 『김지영』과 관련된 기획은 ‘K’라는 라벨이 붙어 BTS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는 등 장르화되는 측면을 보였다. 일본에서의 ‘미투’는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페미니즘 담론 또한 엘리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김지영』에 공감한 많은 이들은 익명성의 보호 아래 그것을 사서 읽는 것 외에 페미니즘의 의식을 공유하지 않는다(후쿠시마 미노리, 『『82년생 김지영』에 열광한 일본 독자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문화과학』 제102호, 문화과학사, 2020). 이는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 세대와 이전 세대 사이를 가로지르는 젠더 감각의 차이와 더불어, ‘번역문학’이라는 거리감이 개입된 ‘탈로컬화’, ‘재로컬화’라는 주체적 수용의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했다(김지영, 『여성 없는 민주주의와 ‘K-페미니즘’ 문학의 경계 넘기: 일본에서의 『82년생 김지영』 번역수용 현상을 중심으로』 『일본학』 57권, 동국대학교 일

이처럼 『김지영』을 통해, 또는 『김지영』과 함께 페미니즘의 주체가 된 이들은 여성혐오 범죄나 ‘미투’와 같은 계기적 사건들을 토대로 젠더폭력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집합적 목소리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의 생산·유통·소비 주체로서 페미니즘을 일상적으로 향유 가능한 인지적·정서적 태도의 하나로 인식하게 하는 시장의 형성에 일조하였다. 『김지영』 이후의 문학은 그러한 대중감각의 원인이자 결과이자 효과로서 자리하고 있다. 2015년 신경숙 표절사태와 문단·문학권력 비판, 2015-2016년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보이는 여성서사와 비평의 강세, 그리고 소수자 재현 윤리를 둘러싼 논쟁들은 『김지영』이 환기한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지영』은 페미니스트 주체의 생산과 운동 흐름 및 분화, 다양한 사건을 촉발하는 매개체로, 완결된 본원적 텍스트가 아닌 되기(becoming)를 추동하는 정동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문학과 사건을 넘나들면서, 양쪽 모두를 계속해서 구성함으로써 현존을 부여받는 서사체인 것이다. 여기서 정동(affect)은 힘을 주고받는 존재들 사이에 형성되는 초개체적 관계성과 그 힘의 증감, 체현된 주체의 형성적·과정적 양태를 강조하고 의미화하는 들뢰즈 지류의 개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동하고(affect) 정동되는(affected) 몸의 능력(capacity)”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힘은 반드시 강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이 몸들 사이를 가로지르면서, 마주침의 지속을 특징으로 하는 그 ‘몸’에 계속해서 새겨지고 축적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로부터 정동은 몸이 어떻게 그것의

본학연구소, 2022).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 확산의 기폭제 중 하나가 된 『김지영』이 더이상 관습적인 문학 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는 텍스트가 된 것에 반해 가까운 일본에서 ‘문학’으로 다시 정체화될 때, 『김지영』이 보여주는 여성 보편의 서사가 갖는 이중적 효과는 ‘외국’-‘문학’이라는 기표를 입고 보다 가상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조경희는 『김지영』과 같은 ‘K페미’ 작품을 매개로 한 일본 대중 정동의 순환이 일본의 포스트페미니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되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조경희, 『일본의 #MeToo 운동과 포스트페미니즘: 무력화하는 힘, 접속하는 마음』, 『여성문학연구』 4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정동됨(연결)’을 ‘정동하는 능력(행위)’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차원과 만나게 된다.²⁾

한편 이러한 몸들의 마주침을 통한 정동의 상호 구성적 힘은 지구화 시대 우리의 정치·경제적 삶의 조건을 설명하는 유효한 관점이기도 하다. ‘정동적 전회’로 지목되는 연구 경향과 패러다임의 변화는 21세기 네트워크 기술, 테크놀로지의 일신과 더불어 정동의 운동성과 정치성에 대한 관심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정동은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역량이 아닌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것의 구성 과정과 양상 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나아간다. ‘정동 노동’(Hardt & Negri, 2004), ‘정동 체계’(Lynch, 2009), ‘정동 네트워크’(Paasonen, Hillis & Petit, 2015), ‘정동적 시간성’(Chamberlain, 2017) 등 동시대의 물적 기반을 해석하고 창안하려는, 정동과 관련된 새로운 명명과 관점이 강조되고 공유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두 가지 함의, 즉 몸(들)의 연결이 불러오는 정치적·윤리적

2)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 이론: 몸과 문화·윤리·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15-17쪽. 한편 체임벌린은 페미니즘의 동시대성을 ‘물결서사’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정동적 시간성’ 개념을 도입한다. 그는 ‘힘’ 또는 ‘힘들의 마주침’으로서의 정동이 힘의 강도와 무관하듯이 부정적 정동의 생성에도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동 개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의 부정형성이나 불확실성이 아닌 ‘이동성’에 있다고 보았다. 즉 정동은 주체를 특정한 정치로 이동시키며, ‘차이’나 ‘영향’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의 생산, 적응, 형성의 과정을 주체의 이행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제4물결 페미니즘’으로 명명되는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의 특징과 분화 양상을 2010년대 영미권 및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면서, 정동이 종래의 선형적·발전론적 시간서사와 다른 형태의 기록과 서사화, 계보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프루던스 체임벌린, 『제4물결 페미니즘: 정동적 시간성』, 김은주, 강은교, 김상애, 허주영 옮김, 에디투스, 2021 참조). 『김지영』을 정동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이러한 연결, 행위, 이동성, 계보의 문제는 ‘되기’와 관련된 다양한 형용사로 논할 수 있으며, 이는 체임벌린이 주목한 바와 같이 정체성이나 세대로 통합되지 않는 주체(들) 생산의 순간을 기술하는 방법론적 혁신과 관련된다.

행위성을 도출하거나, 동시대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기능하는 정동은 ‘몸’이라는 물질성 위에 덧새겨지는 비인칭적인 ‘힘’이자, 그러한 몸들의 마주침을 통해 상호 구성되는 집합적·사회적 감각체계에 대한 ‘해석’이자, 그러한 감각체계가 생성되는 윤리적·정치적 조건을 (재)조직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동에 대한 물음은 ‘무엇’이 아닌 ‘어떻게’에 가까운 것이 된다. 마주치는 주체/대상이 아닌 마주침의 ‘각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과 운동성에 천착하는 것은 ‘이론’이자 ‘분석 대상’이자 ‘방법’이라는 정동의 삼중의 개념적 혼란에서 벗어나, 그것을 통해 사회적 정동 체계라는 물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이 『김지영』을 정동의 관점에서 읽는 이유는 소설이 비단 한국사회의 정동 체계를 둘러싼 다양한 힘들의 마주침과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불러왔다는 사실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김지영』을 정동이라는 해석적·비판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요인은 『김지영』이 촉발한 다양한 사회·정치적 현상과 그럼으로써 반자동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학의 사회적·가치론적 의미로부터가 아닌, 정동하고 정동되는 몸들의 연결을 표시하는 열린 체제, 과정중·운동중인 체제라는 텍스트 내적 특성으로부터 우선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지영』의 정동성이 특유의 서사 구성의 원리 속에서 출현하였으며 특히 그것이 새로운 문학주체를 주조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김지영』이 물고 온 변화의 바람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올바름’이나 대표성, 미학적 실효성을 토대로 그것을 특정짓는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고,³⁾ 또 한편으로는 『김지영』이 ‘누가/무엇을/쓰는가’가 아닌 ‘누가/무엇을/읽는가’의 문제틀로 문학이라는 ‘판’이 다시 짜이는 과정을 담지한다

3) 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정치적·윤리적 올바름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단상」, 『문장웹진』, 2017.4.; 문형준, 「정치적 올바름과 살균된 문화」, 『비교문학』 73권, 한국비교문학회, 2017; 오길영, 「페미니즘 소설의 몇 가지 양상: 조남주, 강화길, 김혜진 소설을 읽고」, 『황해문화』 제98호, 새얼문화재단, 2018.

는 점에서 문학의 정치성을 타진하게 만드는 텍스트로 의미화되기도 했다.⁴⁾ 『김지영』을 계기로 혹은 매개로 하여 페미니스트 주체로서의 새로운 독자 출현과 문학적인 것의 재편을 촉구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김지영』 이전의 문학을 소급하여 재고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소수자 정체성 구성의 저변을 넓히는 서사의 발굴과 『김지영』 이후의 문학을 보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논하는 작업을 요청하는 것에도 연결되었다.⁵⁾ 이치

4) 권명아, 「페미니즘, 문단 문학에서 문학의 정치성을 탈환하다」; 김주선, 「모든 문학과 모든 정치를 위해: 최근 문학과 정치(페미니즘) 논쟁에 부쳐」(이상의 논문은 『문학들』 제52호, 심미안, 2018); 허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김요섭, 「한국문학장의 뉴노멀과 독자 문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비평담론과 독자의 위상」, 『반교어문연구』 58권, 반교어문학회, 2022.

5) 『김지영』 전후로 주목받은 젊은 여성 작가들의 소설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비평들은 텍스트 한정 논제를 보이기보다 문학의 ‘정상성’을 둘러싼 비판을 중심으로 문학사 다시쓰기나 비평의 재계보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식을 담고 있다. 1970년대 ‘비평시대’ 개막에 기입되어 있는 젠더화의 기제를 비판하고(소영현, 「비평시대의 젠더적 기원과 그 불만: 『분례기』에서 『객지』로, 노동 공간의 전환과 ‘노동(자)-남성성’의 구축」, 『대중서사연구』 24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8) 1990년대 및 2000년대 여성문학 담론의 의미와 한계를 밝히는 한편(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강지희, 「2000년대 여성소설 비평의 신성화와 세속화 연구: 배수아와 정이현을 중심으로」; 백지은, 「전진(하지 못)했던 페미니즘: 2000년대 문학 담론과 ‘젠더 패러독스’의 패러독스」, 이상의 논문은 『대중서사연구』 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주류 문학사가 규정한 ‘문학(성)’을 의심하고 해체하려는 작업도 이어졌다(권보드래, 심진경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2018). 이후 활발히 이루어진 쿼서사나 SF, 팬픽과 같은 다양한 장르에 대한 재독은 문학적인 것을 재구성하려는 힘의 운동성과 분화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정동은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백지은은 SF와 같은 장르서사가 소수자‘를’ 표상하는 것이 아닌 소수자‘가’ 발화하는 정동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또한 리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표상’이 아닌 리얼리티를 ‘수행’하는 글쓰기라는 점을 의미화한다(백지은, 「이것이 쓰이고 읽혀서 자기를: 왜 지금 SF가 이렇게」, 『문학동네』, 2020 봄호). 소유정 또한 ‘나(주체)’를 만드는 읽기-쓰기의 정동적 수행에 대해 논한 바 있다(소유정, 「이토록 열렬한 마음: 여성 서사의 아이돌/팬픽-읽기를 통한 나/주체-다시 쓰기」, 『문학동네』, 2020 봄호). 한편 한송희는 『김지영』을 문화영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PC’ 논쟁의 원형을 제공한 사례라 보고, 정치와 미학의 관

럼 『김지영』은 변화의 선두, 또는 한가운데, 혹은 가장 마지막이라는 공시적인 위치성으로 출현하면서 현상의, 또는 현상화하는 담론들 사이에 들러붙어(sticky)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김지영』이 가진 독특한 소설적 형식과 정동의 측면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그것을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로 간주해버리기를 주저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설을 역동적으로 만들지만, 일면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담론의 명징한 ‘컨텍스트’로 『김지영』을 범주화하거나 자리매김하는 관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요컨대 컨텍스트가 아닌 ‘텍스트’로서의 『김지영』이 한국문학장에서 문학의 정치(성) 및 문학주체의 문제와 관련해 보인 특징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지영』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감각체계와 ‘소설’이라는 양식 양자를 상호(재)구성하려는 비평과 담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과 관련해 그러한 『김지영』 ‘현상’을 불러온 기술적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보려는 문제의식의 일환이다.

이상의 견지에서 이 글은 정동의 관점에서 『김지영』을 분석하는데, 특히 정동적 ‘되기’라는 주체화의 형식이 문학주체를 주조하는 맥락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되기’는 ‘읽는 자’가 곧 ‘쓰는 자’가 되는 동시발생적인 정동적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김지영』의 서사 구성 원리가 동시대 새로운 주체들과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데 긴요했다는 점을 밝힌다. 주지하다시피 『김지영』의 정동성은 페미니즘과 같은 사회적·정치적 의제를 반영하는 문학 텍스트 일반에 대한 이해만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문예미학 차원의 독해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김지영’이라는 미결정적이고 경계적인 서사는 다양한 논의 지형 속에서 보다 분명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 글의 궁극적 목적 또한 『김지영』

계를 위계화하거나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는 전제의 작동과 ‘정치’ 및 ‘당사자성’ 개념의 굴절 문제로 거기에 접근한다(한송희, 『한국 문학장에서 ‘정치적’을 바름’은 어떻게 상상되고 있는가?: 『82년생 김지영』 논쟁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6권 제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발판삼아 ‘텍스트’로서의 『김지영』 독법을 갱신하고 소설이 지닌 운동성을 보다 풍부하게 논하려는 것에 있다.

2. 정동 장치로서의 소설과 ‘저자-되기’

김지영 씨가 졸업하던 2005년, 한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100여 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 채용 비율은 29.6퍼센트였다. 겨우 그 수치를 두고도 여풍이 거세다고들 했다. 같은 해 50개 대기업 인사 담당자 설문 조사에서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남성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44퍼센트였고 ‘여성을 선호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 『키워드론 본 2005 취업시장』, 동아일보, 2005.12.14.

** 『신입 사원 채용 시 외모, 성차별 여전』, 연합뉴스, 2005.7.11.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96쪽.⁶⁾

소설 『김지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지영의 일생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서사주체의 목소리가 학술서적과 기사, 통계수치 등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소설 도입부와 말미에 등장하는 정신과 의사는 김지영이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겪어온 여성혐오와 타자화의 경험을 정리하는데, 여기 삽입되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자료들에는 소설 속 김지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는 특정 세대의 독자들이 함께 ‘집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로써 김지영이라는 환자의 내력은 『김지영』 바깥에 있는 수많은 주체들의 경험과 ‘객관적으로’ 공유된다.

주지하다시피 『김지영』이 보이는 이러한 글쓰기 양식은 그것을 소설이 아닌 르포나 보고로 읽히게 하는 측면이 있다. 『김지영』은 통계자료를 통한 객관성과 보편성을 표방함으로써 동시대 여성에 대한 재현을 정보 축

6) 이하 인용은 괄호 안 면수로 표시한다.

적의 차원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로써 독자가 ‘김지영’의 삶에 몰입하고 공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예정된다. 김미정의 논의에도 보이듯이 작가의 오리지널리티가 부재하는 자리에서 독자들이 이제껏 대면되지 못했던 자기 이야기를 기입해 읽는 것은 『김지영』을 매개로 한 “당사자성의 각성 및 획득에 의한 연대”, 공감의 연대로 연결되는 조건이 된다.⁷⁾

그런데 이러한 독자의 ‘김지영 되기’와 페미니스트로서의 각성, 연대는 독자가 단지 김지영과 함께 데이터화된 자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공감’했다는 사실로부터가 아니라, ‘공감’이라는 포획된 정서로 독자들이 집약되는 과정에서 독자가 김지영의 삶을 참조해 자기 삶을 다시 ‘쓰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으로부터 온다. 이때 ‘쓰기’는 물론 작가적 행위가 아닌 자기정체화를 추동하는 인식론적 실천으로서의 자기 ‘재정보화’ 작업에 해당한다. 이는 소설에 가상적으로 동반출현하고 있는 자기를 실제 현실의 자기에 재등록하는 정동적 ‘되기’, ‘저자-되기’의 과정이며, 이것이 소설은 물론 문학주체로서의 독자를 동시에 재구성하는 정동적 효과로 연결된다.

들뢰즈의 내재성의 유물론, 철학적 유목론을 페미니즘의 계보에 도입하는 브라이도티는 그의 정동과 ‘되기’ 개념을 체현된 주체의 형상화(figuration)로 설명한다. ‘되기’는 주체의 과정적·생성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으로, 가변성, 이동성, 일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되기’는 주체의 심층적 내면성이나 초월적 모델의 제정이 아닌 ‘경향성’으로, 비인격 힘들의 다양체와의 연결을 수립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⁸⁾ 들뢰즈가 팔루스로고스중심주의 주체론과 결별하고 동일자의 권력과 우위를 긍정하는 수많은 이항대립과 변증법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면, 브라이도티는 들뢰즈의 작업을 이어받으면서도 여기에 성차(性差)의 문제,

7)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 2017년 한국소설 안팎』, 『문학들』 제50호, 심미안, 2017, 40쪽.

8)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옮김, 꿈꾼문고, 2020, 140쪽.

젠더화된 위치성을 삽입해 반팔루스적 섹슈얼리티 모델에 착목하고 새로운 재현과 형상을 탐구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즉 형상(들)과의, 형상(들) 간의 마주침으로 인해 발현되고 축적되는 주체의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경향성이야말로 유목적 주체를 생산하는 동력이 된다.

이처럼 젠더화된 위치성을 가진 주체가 ‘아직 아님’이라는 미결정의 상태에 있을 때 『김지영』은 그러한 주체를 새로운 형태로 갱신하는 서사적 경험을 부여한다. 이러한 ‘김지영 되기’를 독자의 몰입이나 동일시, 공감을 통한 자기서사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비인격적이고 정동적인 운동성의 의미가 포함된 ‘저자-되기’라는 매개개념⁹⁾을 첨가해 논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젠더화된) ‘문제적 개인’을 다루는 근대 소설 양식의 페미니즘적 전환의 한 양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김지영』 이후의 여성서사와 비평의 강세를 추동하는 흐름의 ‘소설적’ 참조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9) ‘매개개념’은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의 양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발굴되는 것이다. 경험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의 복수성을 촉발하고 구축하려는 것이자, 주체성을 넘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철학적 노력’이다. 매개개념은 일종의 대조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발굴되고 활용되며 그 외에 다른 쓰임새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스티븐 브라운, 이안 터커, 『형언할 수 없는 것 엿 먹이기: 정동과 육체의 관리, 그리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392-394쪽). 이 글에서 매개개념으로 삼고자 하는 ‘저자-되기’ 또한 『김지영』의 정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일시적·가변적 도구이다. 저자-되기는 우선 기존의 저자성(authority) 개념을 중심에 두고 선회하는 ‘저자의 죽음’ 또는 독자반응이론의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그럼으로써 종래의 저자성 자체를 재개념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들뢰즈의 ‘되기’가 기술적이고 형태학적인 혼종으로서 전혀 다른 존재로의 변용을 향한 열림을 의미한다면, 저자-되기는 소설 속 ‘김지영’이라는 가상적 자기를 참조한 현실의 자기 재정보화 과정으로, 소설의 ‘문제적 개인’이 현실화되고 집단화되는 버전을 오가는 정동의 축적을 말한다. 요컨대 저자-되기는 페미니스트 다중이라는 독자에 초점을 맞추거나 전위적인 자기 변용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지영』과 독자가 맺는 일시적이고 독특한 관계 속에서 축적되는 정동,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문학적인 것을 (재)구성하는 흔적을 남겼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런데 『김지영』의 정동성에 초점을 둔다 하더라도 ‘문학’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되기’는 ‘몰입’, ‘동일시’ 등과 같은 기존 문예미학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김지영』에 나타난 ‘되기’가 반드시 ‘정동’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비적 물음이 존재한다. 정동의 구성적·과정적 힘과 정치성에 방점을 두더라도 저자와 독자, 비평 공동체가 문학을 통해 각자의 ‘되기’의 과정에 놓이는 장면은 쉽게 상상할 수 있고 그 지속도 예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문학의 정치성 또한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지영』 ‘현상’을 정서 전이의 차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소설과 독자가 상호 참조하면서 발생하는 정동의 축적, 덧새김이 일종의 사회적 피드백루프를 형성하여, 그것이 다시 소설-독자의 자기조직의 기반이자 변화의 조건이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김성호는 마수미의 정동의 자율성 테제에 가해진 비판을 역비판하면서 감정과 정동을 구분하는 마수미의 정동 개념을 보충 설명한다. 감정이 포획된 정동, 즉 정동의 주체화 형태라면, 정동은 주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그 주체를 포획을 벗어난 것의 초주체적이고 탈주체적인 힘에 동시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감정이 구성하는 주체(들)의 세계는 그것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력의 차원과 뒤섞이면서 ‘세계 출현의 조건’을 변화시킨다.¹⁰⁾ 박현선 또한 정동과 감정을 이론적으로 구분하면서, 포획되

10) 김성호, 『정동적 미메시스: 정동 순환의 매체로서의 소설』, 『안과밖』 48권, 영미 문학연구회, 2020, 22-23쪽. 이 논문은 이론적으로는 정동과 감정, 이데올로기는 구별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제의 과정이나 구조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체계 또한 그것들의 ‘복합체’로, 문학이 다루고 구현하는 것 또한 이러한 복합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문학과 예술 분야, 특히 창작과 독서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생적 예술, 투사 등을 ‘정동적 미메시스’로 의미화한다. 한편 문학이 생산하는 정서체계, 즉 정동의 조건이 이미 제도적으로 정향되어 있거나 타인(비평가)의 반응(감정)에 포획되어 있는 경우 ‘정동의 잠재적 공동체’는 ‘해석의 현실적 공동체’가 되어(논문 37쪽) 관습적인 정서와 관념의 재생산을 불러온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 공동체가 자기부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그 존재 조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거나 폐쇄되거나 자격과 형태를 부여받고 개인화된 경험의 영역으로 넘어간 감정과, 주관적이거나 사회언어학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채 잠재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정동을 대별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상의 정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는 것보다 ‘정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 즉 정동의 사회적 기능을 논하는 데 초점을 뒀야 한다고 말한다.¹¹⁾

이처럼 정동이 가진 예측불가능성과 비인칭적·비본질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적·윤리적 지평 위에서 논할 수 있는 이유는 정동이 우리가 위치한 물적 조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흔적’을 항상적으로 남기기 때문이며, 이는 정동의 교육-미학적(pedagogical-aesthetic) 효과¹²⁾로 설명할 수 있다. 당장 있으면서도 언제나 ‘아직 아님’이라는 현존의 양식을 갖는 정동은 마주침의 지속을 통한 신체화된 경험-흔적의 축적인데, 정동의 교육-미학적 효과는 그러한 축적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삶의 양식을 가시화하고 새로운 감각체계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끌리게 하는 마주침의 ‘각도’, 즉 정동의 ‘실체’가 아닌 ‘기능’, ‘무엇’이 아닌 ‘어떻게’의 차원을 의미화하는 표현이다. 『김지영』을 기점으로 ‘문학적인 것’을 재고하고 한국문학을 공시적·통시적으로 되짚으려는 움직임으로 나아간 작가, 독자, 비평의 공동체는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한 문학주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김지영』에서 촉발된 정동의 창발성은 ‘미학적 패러다임’과 ‘윤

정동을 촉발하는 읽기와 쓰기의 수행이 중요해진다. 물론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읽기와 쓰기의 주체는 개념적으로 독자와 작가로 분리되어 있고 이들 각자가 소설과 맺는 관계 또한 일방향적인 것으로 암시되지만, 정동적 미메시스, ‘생동함의 미메시스’가 작가-소설, 소설-독자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문학 공동체가 새롭게 출현하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에서 『김지영』 현상 또한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 되기도 한다.

11) 박현선, 「정동의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제86호, 문화과학사, 2016, 72-73쪽.

12) 엘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앞의 책, 29쪽.

리적 책임감'을 새로운 각도로 마주치게 했다. 『김지영』을 정서 전이의 측면, 관습적인 문예미학의 관점으로만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김지영』이라는 서사체가 『김지영』과 더불어 수행되는 정동적 읽기-쓰기, 즉 독자의 '저자-되기'를 유도해 독자 자신의 재정보화와 독자가 현실의 자기를 재등록하는 것을 추동함으로써, 오늘날 소설 또는 문학(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교육-미학적 흔적을 남겼다는 점 때문이다. 『김지영』 '현상'으로 관찰되는 정동의 흐름은 일면 몰입과 동일시를 기반으로 한, "내가 김지영이다"라는 당사자성의 각성과 선형적이고 변증법적인 독자 집단의 구성을 중심에 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설이 참조하는 원본 여성과, 독자가 참조하는 가상적 인물의 마주침은 소설과 현실 모두를 재구성하는 상호 참조와 상호 조직의 미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공명하면서, 보다 충분한 참조물의 요청, 저자-되기의 지속을 요청하는 윤리적 책임감 또는 재현 윤리의 발동에 연결된다.

따라서 『김지영』이 보이는 독특한 소설 양식과 거기 수반되는 효과들은 읽는 자와 쓰는 자를 구분하고 읽거나 써지는 경험을 주체로부터 분리하는 기존의 서사미학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김지영』이 문학 공동체의 변화나 여성서사의 강세와 연결되었다는 표면적이고 사후적인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창조 활동,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을 정동적으로 (재)경험하고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삶'의 주체, 즉 '되어감의 주체'¹³⁾를 생산하는 정동 장치로서의 특징을 『김지영』이 지닌다는 점으로부터 온다.

3. 문학과 사건: 소설-독자의 상호 참조와 정동됨의 구조

마수미에 의하면 정동은 사물이 아닌 '사건', 혹은 모든 사건의 어떤

13) 김예란, 『마음의 말: 정동의 사회적 삶』, 컬처북, 2020, 70-71쪽.

차원이다. 사건은 곧 관계이며,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창조하는 중간(in-between) 지대이다. 정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질적인 등록’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데,¹⁴⁾ 『김지영』을 통한 ‘저자-되기’는 독자가 ‘사건화된 자기’와 관계 맺는 과정으로서의 강렬도(intensity), 마주침이라는 물질적 경험의 등록을 표시한다. 이로부터 『김지영』은 새로운 감각체계를 창안하는 ‘문턱’에 있는 텍스트로서의 정동성을 지니게 된다.

이때의 문턱은 『김지영』이 페미니즘 문학·문화주체 생산의 필연적 매개로 기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김지영』의 텍스트 내적 원리가 사회적 상상계 재편의 동력이 되는, 소설-독자 출현의 상호 참조·상호 조직의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김지영』이 가상적으로 참조하는 ‘원본’(통계) 여성이, 현실의 원본 여성을 ‘가상적으로’(‘내가 김지영이다’) 구성하는 자기 재정보화(저자-되기)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김지영』이라는 ‘문학’ 텍스트는 미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뒤섞이는 지대(그러한 구분이 의미가 없는 영역)로 넘어가는 경계가 된다.

『김지영』을 통해 ‘저자-되기’를 수행하는 독자들은 ‘김지영’이라는 허구적 인물을 토대로 소설 바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한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김지영』이 저자(소설가)의 오리지널리티나 등장인물의 파토스를 드러내지 않고 사회과학 보고의 외피를 두르고 있다는 형식적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이 장에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이 김지영과 유사한 공간-시간을 살아온 특정 세대에 부착되는 정동 장치로서의 내밀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김지영』을 읽고 『김지영』 현상을 만들어나갔던 이들을 세대론이나 젠더 범주로 손쉽게 뭉뚱그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김지영』이라는 텍스트가 페미니즘 행위주체성 구성의 동력이 된 데에는 『김지영』에 나타난 가상-현실적인 공간-시간적 사건들이 긴요한 참조점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른바 ‘2030여성’은 현재의 청년세대

14)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정치』, 조성훈 옮김, 갈무리, 2018, 84-86쪽.

(1980·1990년대생)가 공유하는 계층화된 기회구조 속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이들로, 김영미는 1980-90년대생이라는 코호트를,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다양화된 직업적 성취에 따른 계층 분화가 본격화된 시기에 태어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대중 소비가 확산되는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후, 사춘기 시기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기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로 분석한다. 이 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다양한 직업군의 부모를 갖게 된 첫 세대이자 가족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와 라이프스타일의 분화가 당연시된 사회에서 성장한 이들이다.¹⁵⁾

이러한 세대 담론의 맥락에서 여성의 경우 가족 내 전통적인 성차별 문화의 마지막 희생자에, 남성의 경우 마지막 수혜자의 위치에 근접해 있다. 부모 세대가 가진 자본의 차이를 처음으로 체화한 세대인 이들에게 사회경제적 조건을 형성하는 ‘기회의 불평등’은 치명적인 것인데, 『김지영』은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 ‘일반’에 젠더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각인하는 텍스트로서 2030여성 독자층에 받아들여졌다. 이때 ‘구조’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가부장제가 연동되어 개인의 기회구조를 틀지우는 젠더화된 경험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독자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감각하게 하는 『김지영』의 서사 구성 원리는 통계수치와 같은 독자 동반출현 기술만이 아닌, 그러한 기술의 정동적 효과를 담보하는 ‘공간-시간’의 결속에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지영』은 김지영이 태어난 1982년부터 2016년 소설 속 현재 시점에 이르는 기간을 정확히 학제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이야기를 매우 균질적인 분량으로 배분한다. 한국사회에서 학교가 거대한 훈육체제로 평균치의 인간을 양산한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지영의 삶이 6-3-3-4제라는 단선형 학제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15)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집 2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참조.

그것이 이 소설이 주력하는 재현 대상의 일반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정보성 장치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학제적 삶 속에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공간과 그 변주(집-학교-직장-독립가정)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별분업으로 인해 단순 정보가 아닌 ‘패턴화된 정보’가 된다. 다시 말해 『김지영』에서 젠더화된 공간의 학제화·생애주기화는 공간-시간의 결속 장치로 ‘김지영’이라는 젠더와 세대를 현실에서 가상적으로 재구성하는 효과를 가중한다.

‘보통사람’으로서의 김지영이 아동·청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라는 생애주기에 따라 주변 인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단계적으로 자아를 형성해나간다고 할 때, 김지영이 특정 발달기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젠더화된 경험은 공간-시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김지영의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는 김지영이 학교나 직장에서 겪는 개별 사례들과 다르게 보다 구체적인 공간-시간의 연속성을 드러낸다.

김지영 씨가 5학년 때 가족은 이사를 했다. 큰길가의 한 동짜리 신축 빌라 3층, 방 세 개에 거실 겸 주방 하나,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이었다. 전에 살던 주택에 비해 두 배 크기였고, 열 배쯤 편했다. 아버지의 월급에 어머니의 수입까지 차곡차곡 모으고 불린 덕분이었다. 어머니는 각종 은행 상품들의 이율과 혜택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재형저축과 청약저축, 특판 예정금에 투자했다. 믿을 만한 동네 아주머니들과 계를 조직해서 돈을 굴리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났다. (47-48쪽)

어머니는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 두었던 아파트를 제법 이익을 남겨 팔고 아버지의 퇴직금을 더해 신축 주상 복합 빌딩 1층의 한 미분양 상가를 매입했다. 대로변도 아니고 어정쩡한 위치에 비해 매입가가 결코 낮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듯했다. 주변의 낡은 주택가들이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중이었고, 어차피 장사를 하려면 가게는 필요한 거고, 매달 임대료를 내거나 기존 점포를 권리금까지 주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미분양 상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77-78쪽)

남자 형제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여공이 되었던 김지영의 어머니는 이후 ‘엄마’가 되는 수순을 밟았다. 그는 부업과 같은 ‘주부 특화 직종’을 거쳐 미용사가 되고, ‘계’를 조직해 돈을 굴리면서, 김지영의 아버지가 IMF 여파로 퇴직하자 투자 목적으로 사둔 아파트를 팔아 상가를 매입해 가세가 기우는 것을 막는다. 이 과정에서 김지영 가족은 점차 넓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 김지영 또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된다. 인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김지영 어머니의 이러한 행보는 특히 산업화시기 여공 경험과 딸들의 희생이라는 대목에서 “한국 현대사의 마스터플롯”¹⁶⁾으로서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계와 보증금 굴리기, 금리나 월세 수익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나가면서 주택 형태를 옮겨가는 것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로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노정된 현상이다. 특히 이를 주도하거나 가능하게 했던 것이 여성 또는 여성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였다는 점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담당해야만 하는 조건 속에서 선택되는 여성 노동의 역사적 형식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여성에게 빚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가족공동체의 존재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송제숙은 이러한 젠더화된 금융 전략을 한국사회에서 임금과 생계비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급이 일반적으로 선택했던 ‘비공식적 금융제도’ 또는 ‘퇴적된 금융화’ 개념으로 논하면서, 이로부터 만들어진 ‘수완이 좋은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위치성이 한국사회의 정상가족규범과 단단히 결속되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¹⁷⁾

그런데 『김지영』에 삽입된 이러한 ‘마스터플롯’이 소설-독자의 정동적

16) 신선별은 이 소설이 김지영과 그 가족이 겪은 개별적 삶을 제시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인물들은 ‘한국현대사’라는 거대서사의 본류에서 탈선하지 않는 정도로만 고유하다고 분석한다(신선별, 『프레카리아트 페미니스트: 조남주, 강화길 소설에 주목하여』, 『문장웹진』, 2017.6).

17) 송제숙, 『혼자 살아가기: 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황성원 옮김, 동녘, 2018 참조.

연결을 불러왔다고 할 때 그 주된 요인은 김지영 어머니가 자라며 겪은 가족 내 성차별 경험이나 ‘여공’과 같은 계급적-젠더적 요인이 체화된 노동 전선을 거쳤다는 점 자체에 있지 않다. 소설에서 김지영 어머니의 생애서사는 김지영의 학제적 삶이나 성차별 경험의 에피소드와 비교해 다분히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상성이 곧바로 보편서사로 기능하기에는 현실의 ‘김지영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김지영』에 삽입된 다양한 ‘마스터플롯’을 자기 정보로 전유하는 것은, 학제라는 자명한 생애주기서사에 단계적 성별분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성을 연동하여 이를 센서스(census)로 포획하는 『김지영』의 전략 때문이다. 즉 소설 속 김지영 어머니의 삶은 ‘서사’ 구조로서가 아니라 ‘공간’ 구조로, 김지영의 삶에 체현된 공간으로 등장한다. 남아선호사상을 가진 조부모와 뚜렷한 성별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 질서, 어머니의 미용업, 방판, 계, 부업 등 젠더화된 직종과 부부 간 대조되는 돌봄의 방식은 김지영의 학제적 경험 속에서 이야기로서는 후경화되어 있지만, 위 인용에서처럼 김지영이라는 주체를 만든 공간의 변주 속에서 확실한 젠더 문제로 체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시간의 결속은 불평등의 구조를 틀 지우는 핵심으로, 현실의 여성들이 자기를 재정보화(저자-되기)하는 경험의 질적 등록의 양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김지영』은 소설 속 김지영과 현실의 김지영(들)이 상호 참조하는 정보를 통해 양자를 동시에 구성하는 현존의 양식을 만들어내면서, 소설 바깥의 여성들이 소설이 그려낸 김지영과 같은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자기, ‘사건화된 자기’와 만나게 한다. 이러한 정동, 마주침은 독자의 당사자성 각성으로 단선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저자-되기’라는 교육-미학적 효과를 소설-독자에 동시적으로 새기면서, 이들이 새로운 문학 주체, 페미니즘의 주체로 분화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로 나아간다.

4. 사건화하는 사건: 오토포이에시스로서의 ‘빙의’

『김지영』이 기사나 통계수치와 같은 객관적 참고자료를 서사 구성의 주요 원리로 삼으면서 독자의 가상적 자기 재정보화를 추동할 때, 한국 현대사를 구성하는 여성 노동이 체현된 공간을 학제, 생애주기라는 시간의 질서와 결속하여 그러한 ‘저자-되기’의 효과를 가중한 것은 소설-독자의 상호 참조의 질적인 차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로써 ‘김지영’의 삶을 자신의 이야기로 느끼고 자신을 문학적 재현 대상으로 사건화한 존재들이 한국사회가 가진 성차별, 여성혐오의 구조를 직시하고 종래의 한국문학에 기입된 젠더질서나 문화산업에 개입하려는 주체의 (재)생성에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텍스트’ 『김지영』의 정치적 의미를 소급할 때 직면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 『김지영』이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스트 주체 또는 새로운 문학주체의 생성이나 변용을 불러왔다는 사후적 관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닌 정동성이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미끄러지는 것이다. 이른바 ‘대문자 여성’만을 주조하는 보편서사의 (불)가능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문학’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재현 기술이 사회학의 외피 덕에 문학비평 바깥으로 탈구되어 『김지영』이 더이상 ‘텍스트’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의가 그것이다. 『김지영』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주체의 보편성/특수성, 단독성/전형성의 대립 또는 미학 논쟁 외, 독자론이나 광의의 문화정치, 사회현상에 대한 비평의 차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김지영』을 통해 발현된 패턴화된 정보의 자기화, 즉 읽는 자의 수행성(저자-되기)을 추동하는 소설의 형식적 구성의 효과는 단지 독자를 향해 단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김지영』이 지닌 ‘정동하고 정동되는’ 구조, 다시 말해 소설-독자의 상호 조직과 상호 참조라는 ‘되기’의 구조는 소설 속 ‘김지영’ 본인에게도 작동하고 있는데, 바로 ‘빙의’라는 설정이다. 이는 『김지영』의 정동성이 서사를

구성하는 텍스트 내적 원리와 ‘김지영’ 현상을 불러온 텍스트 외적 원리의 구분을 무화하게 만드는, 독특한 자기조직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케 해준다.

김지영 씨는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되었다. 살아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죽은 사람이기도 했는데, 모두 김지영 씨 주변의 여자였다. 아무리 봐도 장난을 치거나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정말, 감쪽같이, 완벽하게, 그 사람이 되었다. (165쪽)

소설 『김지영』의 또 다른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지영’의 몸에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정체성이 빙의한다는 점이다. 소설 전체가 ‘환자’로서의 김지영을 대하고 해석하는 정신과 의사의 발화라는 점에 미루어 소설이 김지영의 삶을 말하면서도 회고가 아닌 보고의 형식을 띠는 것도 서사적으로는 특별한 분석을 요하지 않는다. 보다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김지영의 몸에서 상연되는 다양한 정체성들이 소설 『김지영』의 정동성을 특징짓는 방식이다.

‘김지영’에 빙의하는 인물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김지영 씨 주변의 여자’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김지영이 살아온 날들 속에서 그에게 현실사회에 저항하거나 타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여성’의 위치성을 인식하게 한, 젠더화된 주체의 감각을 일깨운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첫 증상으로 김지영에게 들어온 인물은 어머니로, 그는 태아 성감별을 통한 여아 낙태의 경험자이자 저임금노동과 돌봄노동으로 집안 안팎을 모두 책임진 실질적 가장이었다. 그는 청계천 방직공장에서 남자 형제의 학비를 위해 청춘을 보냈고 ‘어머니’가 된 일을 후회하기도 했다. 김지영의 두 번째 증상으로 등장한 대학 선배 ‘차승연’은 대학시절 동아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을 향한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인물로, 임신과 출산이라는 재생산 문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만약 소설에서 김지영의 증상이 더 묘사된다면 그의 몸이 어머니와 차승연을 징검다리

삼아 찾아갈 다른 여성들 또한 짐작할 수 있다. 김지영의 초등학교 시절, 급식 배당 순서를 공평하게 할 것을 제안해 또래에게 작은 성취감을 안겨준 ‘유나’, 바바리맨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간 이유로 근신 처분을 받은 ‘일진’ 소녀, 그리고 한밤중 남학생에게 쫓기는 김지영을 구해주면서 김지영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 젊은 여성 등이다. 이들은 모두 다른 주체들이지만 김지영에게, 또 독자에게 가부장제에서 살아가는 여성 주체의 위치성을 일깨우는 존재들이다.¹⁸⁾

‘김지영’이 보이는 이러한 증상은 소설 속에서 ‘병의’라고 불리지만 그의 몸을 통해 발화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은 자도 아니고 또래 여성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소설 『김지영』이 타인이 된 김지영의 몸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각각의 정체성이 요구하는 대화나 교감, 해원(解冤)이나 주체로서의 인정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몸’ 자체이다. 그리고 이를 정동적 ‘되기’의 측면에서 논할 수 있는 이유는 김지영의 몸이 타자로부터의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점령으로 병의되는 것이 아니라 ‘김지영’이라는 주체의 맥락 속에서 변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지영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것은 가부장 가족질서에서 최하층에 놓인 ‘며느리’로서의 속박이 극도로 가시화되었을 때이고, 그의 선배 ‘차승연’이 되어버린 것은 돌봄노동으로 인한 고립감이 극에 달했을 때이다. 즉 병의되는 김지영의 몸은 자신의 주체성을 매끈하게 비워낸 공간이 아닌, 단독자이면서도 타자와 항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치이다.

18) 엄혜진은 이러한 ‘병의’ 설정이 김지영이라는 인물의 삶을 모든 여성의 삶으로 확장해 대면하게 하려는 소설의 주체의식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질환으로서의 ‘병의’가 소설에서 김지영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자 단지 ‘우울증’으로 일축된다는 점이 중요하며, 우울증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가부장제라는 공공연한 병리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엄혜진, 『여성의 자기계발과 페미니즘의 불안한 결속: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21, 147쪽).

남시가 몸을 ‘의미의 과일’로 명명한 것은 몸이 연결의 결절이자 마주침의 각도를 생성한다는 정동의 관점과 교호한다. 그가 몸을 ‘의미’의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 바깥의 선험적 규정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재확인하거나, 몸이란 ‘의미’라는 관념성이 육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에 의하면 몸은 의미의 ‘과일’로서 자신의 실존을 절대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이므로, 기호 작용의 질서에 선행하거나 후행하지 않고, 내부나 외부에 위치하지도 않으며, 오직 경계에 존재한다. 따라서 ‘몸-나(ego)’라는 고유성은 없다. 하나의 몸은 자기 자신을 관통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몸들을 관통하면서 ‘열려있음’ 자체에서 ‘무한하게 있다’.¹⁹⁾ 이처럼 ‘아직 아님’을 내재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는 ‘있음’으로서의 몸의 잠재력과 역능은 소설 『김지영』을 둘러싼 다양한 몸(들)을 의미화하는 단초가 된다.

『김지영』에서 ‘빙의’되는 김지영의 몸은 발작적인 정동적 주체 출현의 징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 텍스트로서의 『김지영』과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과 분화,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생성해낸 사후적 현상으로서의 『김지영』을 인과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김지영』의 서사 구성 원리는 보편성에 대한 착목이나 매끄러운 집단기억 주조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글에서 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설의 구조가 ‘김지영’의 몸으로부터 출발해 만들어낸 주체 구성의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소설 속 등장인물인 ‘김지영’의 빙의된 몸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다른 주체로의 이동성을 갖기 때문에 거기 출현하는 정체성들의 발화를 손쉽게 ‘대변’이나 ‘증언’의 차원으로 갈음할 수 없다. 이러한 김지영의 삶을 대신 말하는 의사나 그의 남편 ‘정대현’ 또한 김지영의 삶을 온전히 대리할 수 없는데, 이는 학술서적과 기사, 통계수치와 같은 비교적 객관

19) 장-뤽 남시, 『코르푸스: 몸, 가장 멀리서 오는 지금 여기』, 김예령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8, 27-31쪽.

적인 자료를 인용하면서도 타자를 향해 열린 ‘몸-주체’로서의 김지영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축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지영으로부터, 또는 의사로부터, 또는 소설 자체로부터 대신 말해지지만 결코 다 말해질 수 없는, 현실의 여성들의 삶이 있다. 즉 『김지영』의 서사 구성 원리는 한국사회에서 성차별, 여성혐오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일깨우는 프레임이나 문턱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코 완결된 형식으로 도달하거나 단일한 주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되기’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김지영의 삶을 대신 이야기하는 의사와, 자신의 주변을 살았던 여성을 대신 이야기하는 김지영과, 현실의 여성을 대신 이야기하는 텍스트 『김지영』이 가진 독특한 말하기의 혼용은 『김지영』의 서사 구성 원리가 소설 안팎으로 일종의 순환적 자기조직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이러한 자기조직성(autopoiesis)은 주체를 공간론의 일환으로 설명하는 논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카무라 유지로의 장소론에서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간이나 장(場)에 새겨진 자기조직성에 관한 것이다. 행위의 결과를 다시 정보로 삼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의 되먹임(feedback) 제어가 엄격한 인과관계를 전제한다면, 그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오토포이에시스’는 그러한 인과 자체가 매 순간 변하는 물질의 조건에 동조(attraction)하여 그것을 ‘다시’ 인과의 질적 내용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연법칙이면서도 물리학적 현상인 태풍은, 보통의 소용돌이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다른 물질과의 마찰력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는 것과 달리, 바로 그 인접물과의 마주침을 통해 적란운을 만들어 성장한다. 이 마찰력은 태풍 형성의 바로 그 단계까지만 관여하고 그 결과로서의 적란운의 상승은 수증기의 응결을 조건 삼아 더 큰 부력을 얻으며, 부력에 의한 상승류는 공기를 중심부에 축적하면서 중심 기압은 낮추고 바람을 강하게 한다. 결국 태풍의 생성과 발달의 각 단계는 이전의 제어와 통신을 조건으로

하는 자기조직현상을 보이며, 그러한 시스템은 ‘태풍’을 ‘태풍’이게 하는 전제이자 목적이자 효과이다. 다시 말해 장이나 장소는 “그 자체로서 성립한다기보다 자기조직적인 시스템의 상관자로서 성립하는 것이다.”²⁰⁾ 그리고 나카무라가 주목하는 공간의 오토포이에시스²¹⁾는 장소와 주체 형성의 대유(代喩) 속에서 의미화되고 있다.

정동의 관점에서 몸들의 마주침과 변용으로 촉발되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이동성의 주체들과 이들에게 새겨지는 흔적(교육-미학적 효과)이 새로운 사회적 감각체계를 만드는 ‘몸의 능력’에 이어진다고 할 때, 그러한 변용된 몸-주체들은 단선적이거나 단절적인 인과의 이행에 따르지 않고 매 순간 변용의 순간과 사건을 재생성한다. 『김지영』은 소설 속 김지영과 소설-독자의 형상화를 자기조직체계 즉 오토포이에시스로서 구조화하고 있고, 그것은 매 순간 ‘사건화하는 사건’이다. 『김지영』이 주조한 새로운 문학주체로서의 저자-독자-비평의 공동체가 『김지영』에 기입된 재현의 윤리나 ‘정치적’ 텍스트로서의 『김지영』을 논하는 대신 한국문학 및 우리 사회·공동체 담론에서 주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에 주목한 이유이다. 특히 『김지영』 속 ‘김지영’의 빙의된 몸은 지금-여기라는 문학주체의 구성 원리가 ‘문학적으로’ 수렴된 대목이며, 그러한 주체들의 출현과 변용은 『김지영』 속 의사가 결코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정동이라 할 수 있다.

5. ‘되기’를 향한 욕망으로서의 문학

이 글은 『82년생 김지영』을 정동적 ‘되기’의 관점에서 주목해 소설이 지닌 서사 구성의 원리를 문학주체를 주조하는 기술적 요인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정동은 힘을 주고받는 존재들 사이에 형성되는 초개체적 관

20) 나카무라 유지로, 『토포스』, 박철은 옮김, 그린비, 2012, 64-67쪽.

계성과 그 힘의 증감, 주체의 ‘되기’라는 형성적·과정적 양태를 강조하고 의미화하는 개념이다. 소위 ‘정동하고 정동되는 몸의 능력’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정동됨(연결)’을 ‘정동하는 능력(행위)’으로 변용하는 정치적·윤리적 주체화의 형식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정동의 대표적 쓰임이라 할 수 있다. 정동은 예측불가능성과 비인칭적·비본질적 특징을 필수적으로 갖지만 마주침(encounter)의 흔적과 그 축적이 세계를 재고하는 교육-미학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동시대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들이 되며, 『김지영』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동 장치로서의 내밀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이 글의 주된 논지이다.

『김지영』은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스트 주체 생산과 운동 흐름의 분화를 포함해 다양한 문학·문화사적 계기와 담론들을 형성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서의 『김지영』은 ‘공감’이라는 포획된 정서에 기반한 여성 주체의 각성과 연대를 설명하는 것이 되기에 앞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텍스트 내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정동적 ‘되기’는 소설-독자의 상호 참조와 상호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실천으로서의 자기 재정보화로, 소설의 특징인 통계수치 인용과 같은 독자 동반출현 기술과 젠더화된 공간의 학제화·생애주기화는 이러한 ‘되기’를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다. 한편 『김지영』에 등장하는 ‘빙의’는 김지영의 몸이 자신의 주체성을 매끈하게 비워낸 공간이 아닌, 단독자이면서도 타자와 항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치이다. 이는 소설이 김지영의 삶을 대신 이야기하는 의사와, 자신의 주변을 살았던 여성을 대신 이야기하는 김지영과, 현실의 여성을 대신 이야기하는 텍스트 『김지영』이라는 복합 구조를 체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사 구성의 원리가 소설 안팎으로 새로운 문학주체를 구성하는 자기조직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김지영』은 우리 사회에서 정동적 주체(들)의 발작적 출현의 징후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이 글은 소설이 지닌 운동성을 현상이나 담론

의 맥락이 아닌 서사 내적 원리로 논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정동은 술어가 아니라 역능과 관계로 사유되며, 해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실험으로서 특권화되는 영역이다.²¹⁾ 정동의 이러한 비규정적·비인격적 특성은 그것이 쉽 없이 배치되고 재구성되는 불안정성을 지닌다는 점을 말해주는 동시에, 존재를 ‘생성’하는 힘으로, ‘가능성’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동을 통해 확정적 결론에 도달하거나 명확한 결과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것이 어떤 윤리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타자(성)에 천착하고 차이화를 추동하는 기술로서의 문학의 정치는 정동의 이러한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이 피해자로서의 대중서사를 구성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더욱 생산적인 차원으로 견인하려면 정동 장치로서의 이 소설이 ‘문학’과 ‘현실’ 양자에서 축출되었던 타자로서의 여성을 효과적으로 각인한 방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김지영’과 독자가 동시에 수행한 자기 재정보화라는 ‘개별’ 행위성은 전형성의 문제로 환원되기보다 정동의 흔적으로부터 지속되는 ‘되려는’ 경향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브라이도티가 이러한 ‘되기’의 서사성, 재현, 문화적 조정의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주체 되기의 전체 과정을 지탱하는 것이 다름 아닌 알고자 하는 의지, 발언하고자 하는 욕망이기 때문이며, 이는 ‘되기’를 향한 기초적·일차적·필수적 욕망이자 ‘원초적 욕망’이기도 하다.²²⁾ 『82년생 김지영』이 촉발한 수많은 ‘현상’들은 이러한 욕망의 계보 속에 놓이며, 소설은 그것을 자신의 존재 양식으로 이미 구조화하고 있다.

21) 아르노 빌라니, 로베르 싸소, 『들뢰즈 개념어 사전』, 신지영 옮김, 갈무리, 2013, 352쪽.

22)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50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2. 단행본 및 논문

강지희, 『2000년대 여성소설 비평의 신성화와 세속화 연구: 배수아와 정이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41-68쪽.

권명아, 『페미니즘, 문단 문학에서 문학의 정치성을 탈환하다』, 『문학들』 제52호, 심미안, 2018, 24-35쪽.

권보드래, 심진경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2018.

김미정, 『흔들리는 재현·대의의 시간: 2017년 한국소설 안팎』, 『문학들』 제50호, 심미안, 2017, 26-49쪽.

김성호, 『정동적 미메시스: 정동 순환의 매체로서의 소설』, 『안과밖』 48권, 영미문학연구회, 2020, 14-40쪽.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집 2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27-52쪽.

김예란, 『마음의 말: 정동의 사회적 삶』, 킨처북, 2020.

김요섭, 『한국문학장의 뉴노멀과 독자 문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비평담론과 독자의 위상』, 『반교어문연구』 58권, 반교어문학회, 2022, 303-332쪽.

김주선, 『모든 문학과 모든 정치를 위해: 최근 문학과 정치(페미니즘) 논쟁에 부쳐』, 『문학들』 제52호, 심미안, 2018, 324-337쪽.

- 김지영, 「여성 없는 민주주의와 ‘K-페미니즘’ 문학의 경계 넘기: 일본에서의 『82년생 김지영』 번역수용 현상을 중심으로」, 『일본학』 57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199-231쪽.
- 문형준, 「정치적 올바름과 살균된 문화」, 『비교문학』 73권, 한국비교문학회, 2017, 103-128쪽.
- 박현선, 「정동의 이론적 갈래들과 미적 기능에 대하여」, 『문화과학』 제 86호, 문화과학사, 2016, 59-81쪽.
- 백지은, 「이것이 쓰이고 읽혀서 자기를: 왜 지금 SF가 이렇게」, 『문학동네』, 2020 봄호.
- _____, 「전진(하지 못)했던 페미니즘: 2000년대 문학 담론과 ‘젠더 패러독스’의 패러독스」, 『대중서사연구』 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69-96쪽.
- 서영인, 「1990년대 문학 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9-40쪽.
- 소영현, 「비평 시대의 젠더적 기원과 그 불만: 『분례기』에서 『객지』로, 노동 공간의 전환과 ‘노동(자)-남성성’의 구축」, 『대중서사연구』 24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8, 322-351쪽.
- 소유정, 「이토록 열렬한 마음: 여성 서사의 아이돌/팬픽-읽기를 통한 나/주체-다시 쓰기」, 『문학동네』, 2020 봄호.
- 송제숙, 『혼자 살아가기: 비혼여성, 임대주택, 민주화 이후의 정동』, 황성원 옮김, 동녘, 2018.
- 엄혜진, 「여성의 자기계발과 페미니즘의 불안한 결속: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제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21, 121-162쪽.
- 오길영, 「페미니즘 소설의 몇 가지 양상: 조남주, 강화길, 김혜진 소설을 읽고」, 『황해문화』 제98호, 새얼문화재단, 2018, 335-346쪽.
- 조경희, 「일본의 #MeToo 운동과 포스트페미니즘: 무력화하는 힘, 접속

- 하는 마음』, 『여성문학연구』 4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87-118쪽.
- 한송희, 「한국 문학장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상상되고 있는가?: 『82년생 김지영』 논쟁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6권 제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49-93쪽.
- 허 윤,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18, 123-151쪽.
- 나카무라 유지로, 『토포스』, 박철은 옮김, 그린비, 2012.
- 후쿠시마 미노리, 「『82년생 김지영』에 열광한 일본 독자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문화과학』 제102호, 문화과학사, 2020, 177-201쪽.
-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옮김, 꿈꾼문고, 2020.
- 멜리사 그레그, 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 이론: 몸과 문화 · 윤리 ·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갈무리, 2015.
- 브라이언 마수미, 『정동정치』, 조성훈 옮김, 갈무리, 2018.
- 아르노 빌라니, 로베르 싸소, 『들뢰즈 개념어 사전』, 신지영 옮김, 갈무리, 2013.
- 장-뤽 낭시, 『코르푸스: 몸, 가장 멀리서 오는 지금 여기』, 김예령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8.
- 프루던스 체임벌린, 『제4물결 페미니즘: 정동적 시간성』, 김은주, 강은교, 김상애, 허주영 옮김, 에디투스, 2021.

3. 기타자료

- 신셋별, 「프레카리아트 페미니스트: 조남주, 강화길 소설에 주목하여」, 『문장웹진』, 2017.6. <https://webzine.munjang.or.kr/archives/14>

0355

- 임수연, 김소미, 「사회가 낳은 소설, 소설이 키운 이슈, 이슈가 띄운 영화: 『82년생 김지영』 관련 논란 타임라인」, 『씨네21』, 2019.10.30.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4131
- 장은수, 「해외서 위상 높아진 한국 문학, 그 이면엔」, 『서울신문』, 2020.10.29.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35131>
- 조강석, 「메시지의 전경화와 소설의 ‘실효성’: 정치적·윤리적 올바름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단상」, 『문장웹진』, 2017.4. <https://webzine.munjang.or.kr/archives/139778>

<Abstract>

Literature and Event
- The Novel as Affect Apparatus and
Becoming-Subject of Literature Focusing on *Kim*
Jiyoung, Born 1982

Kwon, Young-Bin*

This article focused on *Kim Jiyoung, born 1982* from the perspective of affective 'becoming' and tried to analyze the principle of narrative composition of the novel as a technical factor that molds the subject of literature. Affect is expressed as 'force' or 'encounter of forces' and 'the capacity of the body to affected and to be affected'. In addition, it is a concept that analyzes the form of political and ethical subjectification that transforms this 'being affected(connection)' into 'the ability to affect(action)'. Affect has unpredictability, impersonal and non-essential characteristics as essential. However, in that the traces of encounters and their accumulation create pedagogical-aesthetic effects of reconsidering the world, they are the main concepts that explain contemporaries. *Kim Jiyoung, born 1982* has a structure as an affective apparatus that makes this possible.

Kim Jiyoung, born 1982 has formed various literary and cultural discourses such as the production and movement of feminist subjects in our society. Before explaining the awakening and solidarity of female subjects based on the captured affect as 'empathy', *Kim*

* Dong-A University

Ji-young, born 1982 as a ‘phenomenon’ should be discussed in text’s internal structure detail. The affective ‘becoming’ discussed in this article is an epistemological practice that enables the cross-reference and mutual organization of novel-readers which means means ‘self-reinformatization’. The novel drives this ‘becoming’ by citing statistical figures or by timing genderized spaces. On the other hand, the “possession” that appears in *Kim Ji-young, born 1982* is a device that emphasizes that Kim Jiyoung’s body is not a empty space where her subjectivity has disappeared, but a relational existence that is always connected to “the other” while being single person. *Kim Jiyoung, born 1982* has latent structures creates a “self-organizing system” that constitutes a new literary subject inside and outside the novel. *Kim Jiyoung, born 1982* is a text that shows signs of a seizure of affective subject in our society, and this article was an attempt to discuss the motility of the novel at a technical level, not in the context of a phenomenon or discourse.

Key Words: *Kim Jiyoung, Born 1982*, affect, feminism, body, becoming, female narrative

■ 논문접수 : 2022년 11월 30일

■ 심사완료 : 2022년 12월 19일

■ 게재확정 : 2022년 12월 20일